

다채로운 색채 마술 같은 이곳...봄 기운 만연한 전시회

10, March, 2016 | 이승연 기자

page 1 of 2

▶ 꽃의 내면적 상징

장-미셸 오토니엘 개인전: 검은 연꽃



사진, 조각,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존재의 상실과 부재, 그리고 인간이 지니는 상처들을 주제로 다루어온 프랑스 조각가 장-미셸 오토니엘. 그가 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. 오는 3월27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<장-미셸 오토니엘 개인전: 검은 연꽃>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'꽃'의 내면적 상징과 더불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인다. 오토니엘은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'연꽃'이 상징하는 문화,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. 전시 작품 중 '검은 연꽃(Black Lotus)'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<악의 꽃>과 랭보의 <보이지 않는 찬란함>에서 영감을 받았다. 이처럼 작가는 '모순된 단어의 조합'에 양가적인 가치를 표현한다. 유리 구슬 조각으로 주조된 평면작품은 검은색, 보라색 등 어두운 채색을 이용해 연꽃 본연의 깨끗함을 극적으로 드러내듯이 말이다. 이 밖에도 '황금 연꽃' '푸른매듭' 등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작가의 작품 세계 속에서 뛰어난 독창적인 유리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.



해시태그 Check Point

#꽃 "나의 작업에서 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꽃의 숨은 의미나 상징은 매력적인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. 나에게 끊임없는 경이의 원천은 바로 '실재하는 것들'이다"는 오토니엘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'꽃'을 다각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.

URL : 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no=185354&year=2016>